

범죄통계로 보는 우리나라 발생 범죄의 특징

박형민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범죄조사연구실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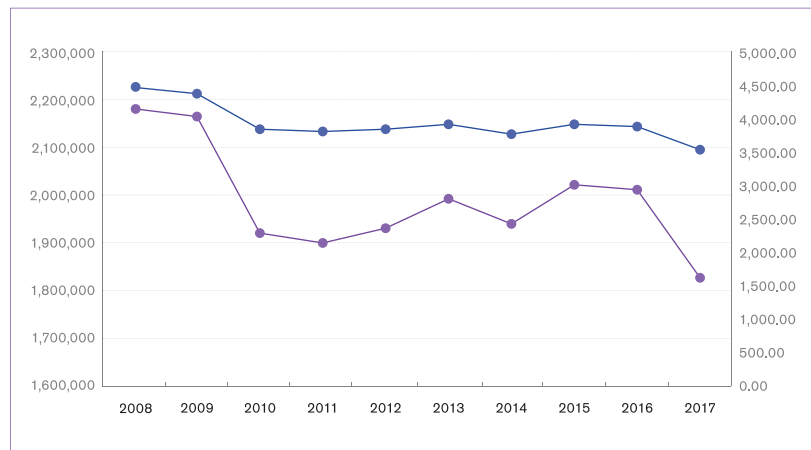
범죄에 관한 대표적인 공식통계는 대검찰청에서 발간하는 <범죄분석>과 경찰청에서 발간하는 <범죄통계>가 있다. 경찰청의 <범죄통계>는 전국 각급 경찰관서에서 3종의 형사사건 범죄통계원표(발생·검거·피의자 통계원표)에 근거하여 작성 및 승인한 자료를 경찰청 수사국에서 집계·관리하여 분석한 것이며, 고소·고발된 사건을 포함하여 경찰이 처리한 사건에 대한 통계로서, 기소·불기소 의견송치 등을 모두 포함한 자료이다(경찰청 2018). 한편 대검찰청의 <범죄분석>은 경찰청의 <범죄통계>를 기본자료로 하여 경찰이 인지하여 검찰에 송치한 사건에 관한 통계자료에 검찰이 직접 인지하거나 직접 접수한 사건과 특별사법경찰관이 인지한 사건에 관한 통계자료를 합한 것이다(김지선, 홍영오, 2015). 따라서 우리나라 전체 범죄의 추세 및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범죄통계>보다는 <범죄분석>이 모든 범죄를 포괄한다는 측면에서 조금 더 적합한 자료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에서는 대검찰청의 <범죄분석> 자료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발생 범죄의 특징을 살펴보도록 할 것이다. <범죄분석> 자료의 수치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범죄와 형사사법 통계정보(Crime and Criminal Justice Statistics: CCJS)’를 활용하였다.

우리나라 범죄 발생 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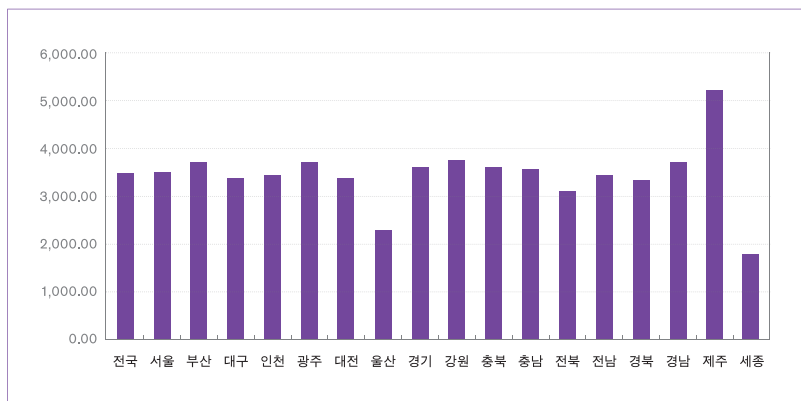
먼저 최근 10년간의 전체 범죄의 발생 건수를 살펴보면 2008년에 218만 9,452건의 범죄가 발생하였고, 2009년에 216만 8,185건으로 다소 감소하였다가, 2010년에 191만 7,300건으로 크게 감소하였다. 이후 2011년 190만 2,720건, 2012년 193만 4,410건, 2013년 199만 6,389건, 2014년 193만 3,835건, 2015년 202만 731건, 2016년 200만 8,290건 등으로 증감을 거듭하다가, 2017년에는 182만 4,876건으로 크게 감소하여 가장 낮은 발생 건수를 나타내고 있다.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의 범죄 발생 건수는 최근 10년간 감소하고 있는 추세로 볼 수 있으며, 2017년의 범죄 발생건수는 2008년에 비해 약 20%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인구 10만 명당 발생 건수를 의미하는 발생비를 살펴보면, 발생 건수의 추이와 유사한 모습을 살펴볼 수 있고, 2017년의 범죄 발생비 역시 2008년에 비해 약 20%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범죄 발생 건수의 감소가 인구의 감소의 영향만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2017년의 범죄 발생 건수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 35만 2,471건, 부산 13만 148건, 대구 8만 2,281건, 인천 10만 1,526건, 광주 5만 4,627건, 대전 5만 357건, 울산 2만 6,558건, 경기 45만 9,893건, 강원 5만 8,900건, 충북 5만 6,944건, 충남 7만 3,772건, 전북 5만 7,238건, 전남 6만 4,618건, 경북 8만 9,049건, 경남 12만 7,294건, 제주 3만 4,177건, 세종 5,023건으로 나타났다. 이것을 지역별로 비교하기 위해 범죄발생비를 살펴보면, 서울 3,575.7, 부산 3,750.0, 대구 3,324.2, 인천 3,443.3, 광주 3,731.9, 대전 3,352.2, 울산 2,279.4, 경기 3,572.3, 강



전체 범죄의 발생 건수 및 발생비(2008~2017)

● 발생건수 ● 발생비



지역별 범죄 발생비의 분포

원 3,799.7, 충북 3,571.4, 충남 3,485.1, 전북 3,086.3, 전남 3,407.4, 경북 3,308.3, 경남 3,765.6, 제주 3,417.7, 세종 1,793.3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범죄 발생비가 낮은 지역은 세종시와 울산광역시였고, 가장 높은 지역은 제주도였다. 그러나 광역시와 도의 일관적인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주요 범죄 발생 장소

〈범죄분석〉에서 2017년의 범죄 발생 장소가 드러난 것은 57만 4,494건이었는데, 범행 장소가 드러난 곳들 중 기타를 제외하면 노상에서 발생한 범죄가 26.8%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아파트·연립·다세대에서 발생한 범죄(6.7%)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유흥접객업소에서 발생한 범죄(6.6%)와 단독주택에서 발생한 범죄(6.0%)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 상점에서 발생한 범죄가 4.6%, 사무실에서 발생한 범죄가 2.5%, 숙박업소·목욕탕에서 발생한 범죄가 2.3% 등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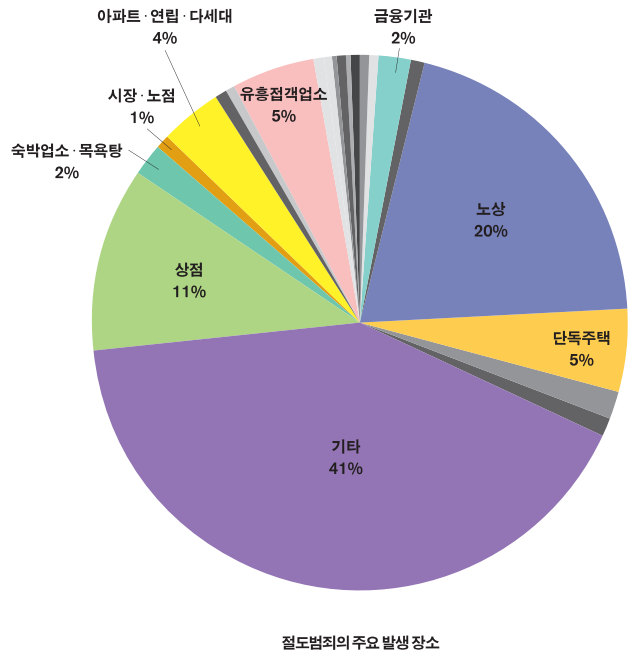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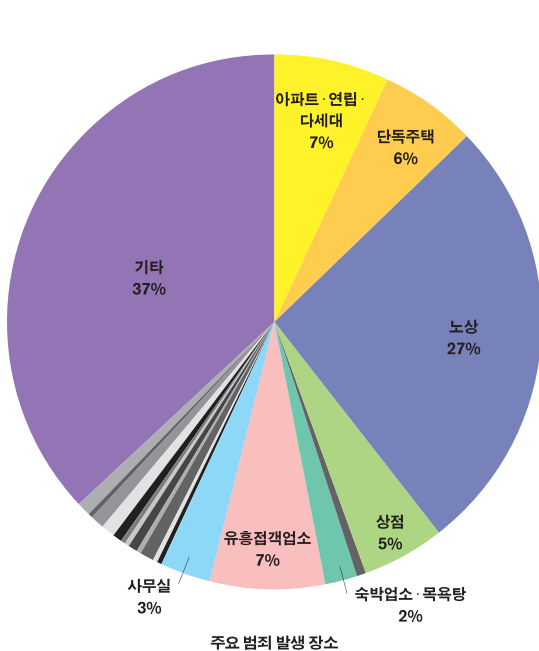
이처럼 우리가 일상적으로 보행하는 노상에서 발생한 범죄가 많은 것은 우리가 언제든지 범죄의 위협에 노출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보행로의 안전을 증진시켜서 보행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된다면 상당한 부분의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는 것도 시사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아파트·연립·다세대 및 단독주택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대해서도, 거주지의 보안이 증진된다면 예방할 수 있는 범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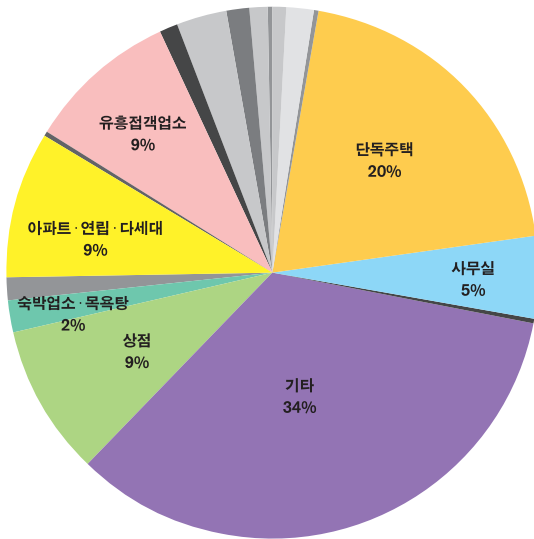
가 상당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물론 가정폭력 등 거주자 또는 내부인에 의한 범죄에 대해서는 별도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그 밖에도 유흥접객업소 등 유해환경에 대한 정비 역시 많은 수의 범죄에 대한 대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범죄 발생 장소를 절도범죄로 한정해서 살펴보면, 전체 절도는 노상에서 발생한 절도가 19.97%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상점에서 발생한 절도가 10.91%로 많았다. 그리고 유흥접객업소에서 발생한 절도가 5.42%, 단독주택에서 발생한 절도가 4.91%, 아파트·연립·다세대에서 발생한 절도가 3.82% 등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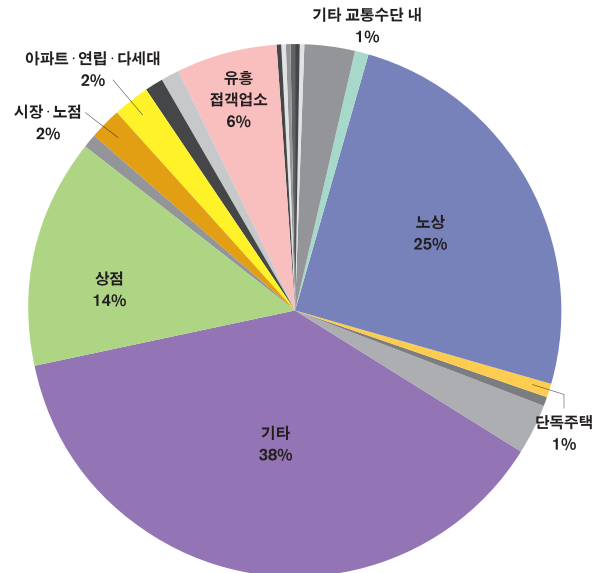
이 중 침입절도는 단독주택에서 발생한 절도가 20.21%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유흥접객업소에서 발생한 범죄가 9.09%, 상점에서 발생한 절도가 8.84%로 많았다. 그 밖에 아파트·연립·다세대에서 발생한 절도는 8.78%, 사무실에서 발생한 절도는 4.68%, 숙박업소·목욕탕에서 발생한 절도는 2.21% 등으로 나타났다.

한편 절도범죄 중 침입절도 다음으로 많은 발생건수를 나타내는 들치기의 경우에는, 기타(38.03%)를 제외하면, 대부분 노상(25.06%)에서 발생하였으며, 상점에서 13.77%, 유흥접객업소에서 5.94% 등이 발생하





침입절도의 주요 발생 장소



들치기 범죄의 주요 발생 장소

였다. 소매치기는 노상(33.25%)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였으며, 시장·노점에서 5.72%, 역·대합실에서 5.36%가 발생하였다. 그 밖에 유흥접객업소에서 4.38%, 상점에서 3.90%, 기타교통수단 내에서 3.53% 등이 발생하였다.

앞서 전체 범죄의 발생 장소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절도범죄 역시 기타와 미상을 제외하면 절반 이상의 범죄가 노상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들치기와 소매치기 등 대인절도 범죄는 대부분 노상에서 발생하고 있으므로, 보행로에서 보행자를 보호할 수 있는 다양한 대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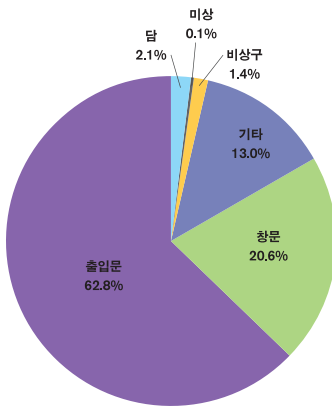
침입범죄의 대부분이 발생하는 거주지 중 아파트·연립·다세대 주택에서 발생하는 절도보다 단독주택에서 발생하는 절도범죄가 더 많은 것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실제 가구 수와 거주자의 수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단독주택에서 상대적으로 많은 침입절도 범죄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공동주택에 비하여 단독주택의 보안이 취약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나라 단독주택의 실정에 맞는 보안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한다고 할 수 있다.

침입절도의 침입구와 침입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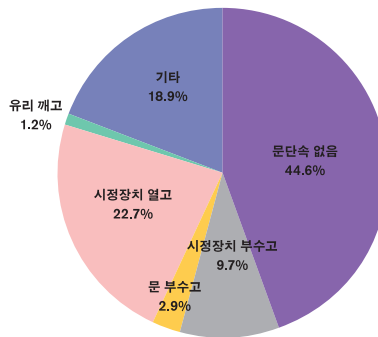
침입절도의 침입구를 살펴보면, 거의 대부분의 침입절도가 출입문을 통하여(62.8%) 침입하였던 것으로 나타났으며, 창문을 통해 침입한 경우가 20.6%, 담을 통하여 침입한 경우가 2.1%로 나타났다.

출입문을 통해서 침입한 경우 특별한 문단속이 없었던 경우가 44.6%, 시정장치를 열고 침입한 경우가 22.7%로 나타났으며, 시정장치를 부수고 침입한 경우가 9.7%였다. 그러나 문을 부수고 침입한 경우(2.9%)와 유리를 깨고 침입한 경우(1.2%)는 상대적으로 많지 않았다. 창문을 통하여 침입한 경우에도 특별한 문단속이 없었던 경우가 41.6%로 기타와 미상을 제외하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시정장치를 열고 침입한 경우는 18.1%로 나타났다. 그 밖에 유리를 깨고 침입한 경우는 6.7%, 시정장치를 부수고 침입한 경우는 6.6%, 문을 부수고 침입한 경우는 2.4%를 나타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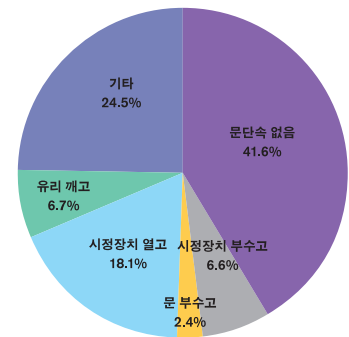
결국 절도범죄자들이 침입하는 경우 담이나 지붕과 같이 통행하기 어려운 곳을 통해 침입하는 것이 아니라, 출입문을 통해 침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나머지 절도범죄자도 창문을 통해 침입하고 있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더욱이 절도범죄자들이 출입문을 통해 침입하는 경우에 특별한 문단속이 없었던 지점을 통해 침입하는 경우가 많으며, 완력이나 기구를 사용하여 문이나 시정장치를 부수고 침입하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적었다는 것은 일상적인 문단속과 시정장치만으로도 예방할 수 있는 침입 범죄가 상당수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다. 창문을 통한 침입에도 특별한 문단속이 없는 창문을 이용하였다는 것도 같은 것을 시사한다.



침입절도의 침입구



출입문을 통해 침입한 경우 침입 방법



창문을 통해 침입한 경우 침입 방법

범죄통계 분석에 대한 시사점

지금까지 전체 범죄 발생 추세와 범죄 발생 지역 및 범죄 발생 장소를 대검찰청의 〈범죄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우리나라의 범죄가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는 것은 긍정적인 측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수의 범죄가 우리 주변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가장 많은 범죄가 발생하는 곳이 노상이라는 점을 통해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보행로에 대한 범죄 예방 활동이 더욱 충실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물론 전체 범죄가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는 것에는 지금까지 수행해 온 많은 대책들의 효과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피해자들이 발생하는 보행로에 대한 더욱 철저한 대책이 필요할 것이며 보다 과학적이고 효과적인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침입범죄의 발생 양상을 통해, 우리나라의 단독주택의 보안이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범죄자들이 침입할 경우 문단속이 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이나 창문을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살펴보았다. 이것은 출입문이나 창문을 잠그기만 해도 많은 수의 침입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대해서도 주민들이 주의를 기울이는 것도 필요하지만, 좀 더 효과적으로 출입문이나 창문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한다면 침입범죄 예방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도 의미한다.

이것은 우리의 환경과 생활방식에 맞는 범죄예방 대책을 고민하고 실천해야 함을 말하고 있으며, 가장 효과적인 대안 중 하나가 CPTED 전략을 우리에게 맞게 실현해 나가는 것이라 믿는다. 많은 연구자들이 지금까지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보다 풍부한 통계자료와 엄밀한 분석을 통해 자료에 기반한 범죄예방 대책을 연구하여 성과를 낼 필요가 있을 것이며, 이것을 위해 범죄 현상에 대한 이해와 공간환경에 대한 이해를 같이하여 협력하는 다양한 방안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1 경찰청. (2018). 범죄통계.
- 2 대검찰청. (각 연도). 범죄분석.
- 3 김지선, 홍영오. (2015). 범죄분석 활용도 제고방안에 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대검찰청 연구용역보고서)